

청소년·교사 함께 한 무대 “관객과 만나 더 즐거웠다”

제11회 광주·전남 청소년축제 광주시 동구 금남근린공원 특설무대

댄스·그룹사운드·실용음악 등 끼·열정 발산 갈채
‘함께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도 곁들여져

녹음이 우거진 도심 공원에서 광주·전남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신명난 무대가 펼쳐졌다.

광주·전남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 문화예술축제인 ‘제11회 광주·전남 청소년축제’가 지난 20일 광주시 동구 금남근린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문별 기량을 겨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최고 실력을 갖추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 팀의 무대로 진행됐다.

참가팀들은 댄스, 그룹사운드, 실용음악 등 부문에서 탐과 열정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공연팀과 소수 관객만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무대는 현장에서 대형 멀티비전으로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광주 동명고 댄스동아리 ‘비기닝 크루’의 열정적인 무대로 눈을 연 축제는 비트씨(B TO sSi, 문정여고), 효천댄스(효천중)의 무대로 이어지며 흥을 돋웠다.

그룹사운드 부문에 참가한 효천밴드(효천중)는

이제로운 연주를 선보였다. 여는 팀과 달리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남 교사가 연주에 참가해 제자들과 화음을 연출하는 등 세대를 뛰어넘는 무대를 연출했다.

이남 교사는 “청소년축제는 청소년들이 재능을 선보이는 무대여서 뜻깊다”며 “학교에서 벗어나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첨단고 학생들로 구성된 ‘전자현악 앙상블’은 전자현악기의 색다른 음색과 매력을 선사해 주목받았다.

팀의 리더인 채규영(3년)양은 “학교에서 예체능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코로나19로 우리들이 설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아 아쉬웠다”면서 “모처럼 관객과 만나는 무대가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씨니 패밀리’, ‘꾸러기 밴드’, ‘블루멘과르벳’, ‘유스필즈주단’, ‘브룩치’ 등도 풋풋한 열정을 무대에서 선보였다.

2시간여 진행된 공연은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생들로 구성된 ‘KJN 파워댄스팀’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제11회 광주·전남청소년축제가 지난 20일 광주시 동구 금남근린공원에서 열렸다. 비트씨(BTO sSi, 문정여고) 멤버들이 파워풀한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이날 청소년축제에서는 공연 행사와 ‘함께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라는 행사 취지를 살려, 행사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즐겁고 안전한 생활을 독려하는 캠페인도 곁들여졌다.

광주·전남 청소년축제는 2012년부터 매년 개최

되고 있다. 2회 대회까지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열렸고, 3회부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근린공원 등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축제는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

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광주일보사와 아시아문화가 주최하고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지역 주요 대학이 후원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건강 찾은 ‘팔색조 의형제’ 무등산 품으로

광주시 동물구조관리센터, 어미 잃은 두 마리 보살펴
2019년 개소 뒤 멸종위기종 등 118종 1985마리 구조

어미를 잃은 채 구조된 천연기념물 팔색조 2마리(사진)가 건강하게 자연 품으로 돌아갔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이달 초부터 보호해 온 팔색조 2마리를 무등산 자락에 풀어줬다”고 2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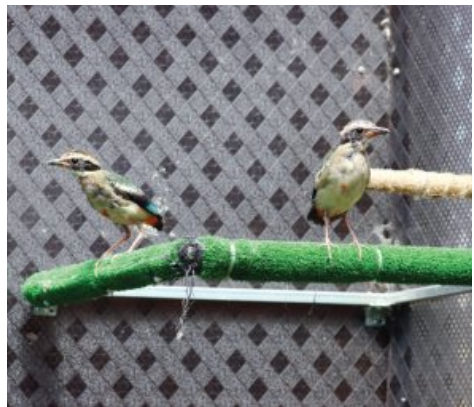
팔색조들은 어미를 잃은 상태로 지난 1일과 3일 동구 학동, 서석동 건물 주변에서 각각 발견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보살핌을 받았다.

팔색조는 비단처럼 빛나는 여덟 빛깔의 색을 가진 희귀 여름 철새로 천연기념물 204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2019년 개소 후 118종, 1985마리를 구조·치료했으며 이 가운데 631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구조한 동물 중에는 수달, 하늘다람쥐, 수리부엉이, 샵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동물 20종, 253마리도 포함됐다.

야생동물구조 치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광주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보건환경검사-검사·조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철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소중한 구조 동물을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생태환경 도시 광주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제징용 배상판결 ‘차일피일’

대법원 현금화 명령 최종결정 미뤄져...강제집행도 지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93) 할머니를 위한 전법기업의 배상판결 강제집행이 미뤄졌다.

대법원이 19일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재항고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만 하며 그만큼 강제집행도 늦춰지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항고 이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면 재항고를 기각하고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미쓰비시는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특허권 2개를 압류당했으며 매각을 위해 상표권 특별현금화 결정까지 받았으나 재항고한 상태다. 19일은 김성주 할머니 사건 관련 재항고가 접수된 지 4개월이 되는 날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함께 강제집행 수순을 밟고 있는 양금액(94) 할

머니 사건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쓰비시는 양금액 할머니 사건으로 상표권 2개에 대해 압류·특별현금화 명령을 받았으며 지난 5월 6일 재항고를 접수했다. 이 사건 역시 다음달 6일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성주 할머니 사건이 다음달 초 분수령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심법관인 김재형 대법관이 다음 달 4일 퇴임하는데 그 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관은 김성주 할머니 사건과 관련한 심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식당근로자도 ‘금타 직원’

사측, 5명에 3400만~9400만원 임금 차액분 지급해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식당 근로자들이 항소심에서 금호타이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근로자 5명에게 3400만~9400만원까지 임금 차액분 지급도 명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김모씨가 피고 기업의 근로자

임을 확인했다. 지모씨 등 3명의 경우 고용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피고가 이들에 대해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1심 재판 도중 정년퇴직한 윤모씨에 대한선 임금 차액분 청구와 달리 재판 실익이 없다며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원고 5명은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차례로 ‘금호 곡성식당 주식회사’에 입사해 곡성공장 근로자

들의 근로시간에 맞춰 야식 등 하루 4차례 조리 및 배식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5년 다른 협력사 직원 11명과 함께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며, 계속 근무 기간도 2년을 초과했다’며 금호타이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임금 차액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타이어 제조 공정에 참여하는 협력사 직원 11명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소속 영안사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하고, 원고들이 속한 식당은 휴게시간 등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김형호 기자 k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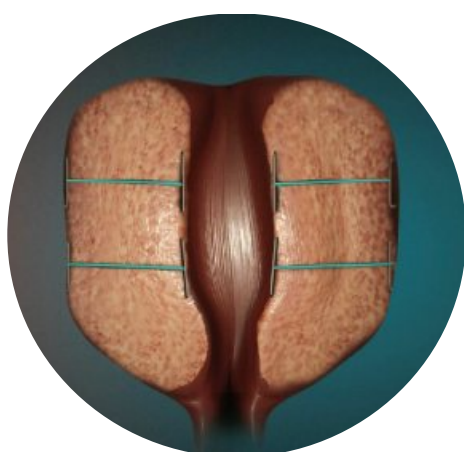
<광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220727-중-142427호

검사부터 수술까지 당일치로 지향

※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치료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술



고령이나 고위험군 환자에서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국소마취하여 짧은 시간에 수술 가능한 전립선비대증 치료방법이다.

수술 원리는 전립선을 묶어줄 수 있게 고안된 견인사를 내시경을 통해 결찰하여 막혀있는 전립선 요도를 개통하여 주는 원리다.

장점

- ▶ 고령 및 고위험군에서도 수술 가능
- ▶ 국소 / 수면(의식하진정) 마취하에 수술 가능
- ▶ 심장 스텐트 시술 환자, 뇌졸중 환자 등 항혈전제 복용 환자인 경우 약물 중단 없이 수술 가능
- ▶ 짧은 수술시간 (15 ~ 20분 정도)
- ▶ 검사에서 수술까지 당일수술 및 퇴원가능

단점

- ▶ 100g 이상 거대 전립선의 경우 치료 효과가 떨어져 적응증이 되지 않음
- ※ 수술 후 일시적 요폐, 요금 및 자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결찰술은 장기간 전립선 약물치료를 원하지 않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수술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밀한 검사와 수술이 당일에 진행되어 퇴원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 전립선비대증 치료방법으로 선택되고 있다.

서초구 서운로 220,4층(서초동 1302-2) 9호선 신논현역 9번출구 자이비뇨의학과병원 010-4482-5670